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예방에 대한 제언

김 유 창
동의대학교 교수

1. 들어가는 글

2022년 10월 29일 다음 날 새벽에 아내가 사람들이 서로 깔려 수십 명이 죽은 사고가 났다고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길 하였다. 그때 나는 어느 나라에서 발생한 사고냐고 물었다. 그러한 사고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최종적으로 이태원 사고로 사망자는 159명, 부상자는 196명이 발생하였다. 14개국에서 온 26명의 외국인도 사망자에 포함되었다. 사망자의 대부분이 30세 미만이었으며, 2/3가 여성이었다.

이태원 참사는 한국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었던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후 8년 6개월 지난 후 발생한 사고이다. 이태

원 참사는 대한민국의 상징인 서울, 그리고 대통령이 살고 있는 용산의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건이어서 국민들의 충격은 매우 컸다. 대한민국 국민의 머릿속에 엄청난 사고 트라우마가 오래 지속될 것이다.

한국의 많은 젊은이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제 이태원 참사의 주요 사안과 문제점을 정리하여야 할 시간이 된 것 같다. 안전을 연구하는 안전전문가로서 그동안 SNS 등에 글을 남기고 싶었지만, 이태원 참사가 정치문제로 변질되는 걱정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였다.

2. 사고 경위와 주요 원인

1) 사고 경위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있는 이태원 거리는 즐거움, 자유, 그리고 개방적인 장소로 한국과 외국의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다. 그러나 좁고 가파른 거리는 행사 때마다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한국은 코로나로 인해 몇 년간 축제를 열지 못한 상태에서 핼러윈 축제를 열었고, 흥미로운 야외활동에 목말라 있던 많은 젊은이가 핼러윈 축제에 참여하였다.

사고 당일 이태원 지하철역에 내린 사람은 약 8만 2천 명

으로 지난해 약 3만 2천 명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약 10만 명이 이태원 거리에 있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길이는 42미터 정도였고, 위쪽의 가장 넓은 폭은 7미터, 가장 좁은 폭은 3.6미터로 깔때기 모양이었다. 사고 도로는 위쪽이 아래쪽보다 4.3미터 높은 경사진 도로였다.

밀집된 군중이 밤에 천천히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넘어지기 시작하였고, 골목의 좁은 구간에서 인파가 계속하여 위에서 아래로 밀고 내려가면서 시신이 쌓이기 시작하였다. 결국 사망자는 159명, 부상자는 196명이라는 엄청난 참사가 발생하였다.

2) 사고 원인

사고 원인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 후에 정확히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처벌을 위한 경찰과 검찰의 조사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 경찰과 검찰은 안전전문가가 아니다. 안전전문가를 중심으로 심리학자와 도시설계자 같은 전문가들의 사고조사가 필요하다. 사고의 직접 원인뿐만 아니라 배후 원인인 간접 원인도 정확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대략적인 주요 사고 원인은 아래와 같이 추정된다.

첫째, 적절한 군중과 교통 통제가 부족하였다. 경찰 당국은 축제 기간에 코로나와 마약 단속에 경찰력을 집중하였고,

군중과 교통 통제에 미약하였다고 밝혔다. 군중 밀집도는 제곱미터(m^2) 면적당 3명 정도가 적당하고, 5명 정도는 자기 몸을 보호하거나 탈출할 수 있고, 12명 이상에서는 공간이 몸통보다 적어 몸이나 팔을 움직일 수 없고 호흡이 힘들어지며 개인의 힘보다는 군중 자체의 힘으로 밀려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사고 당일 경찰의 발표를 토대로 추정해보면 제곱미터(m^2) 면적당 12명 이상이 밀집되어 있었다고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군중들은 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살기 위한 경쟁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위험은 더욱 가중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도달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사고 당일 경찰은 도로와 지하철에서 교통 통제뿐만 아니라 밀집된 군중을 통제하는 데 실패하였다.

둘째, 경찰 등 관련 조직의 사고대처가 늦었다. 사고가 나기 전에 11번의 위험을 알리는 신고 전화가 경찰에 접수되었다. 6시 30분경 첫 위험 신고가 있었고, 9시대에 중점적인 위험 신고가 있었으며, 10시 27분경 구급차가 처음 파견되었다. 경찰은 몇 번의 신고를 받은 후에 출동하였지만, 정부의 행사가 아니었기에 군중 통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사고대처가 늦은 이유에 대해 경찰 인원 부족 등 여러 가지 설이 인터넷에 퍼져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사고 후 사고 처리에 대한 정부의 미흡 사항, 유가족에 대한 배려와 협의

문제, 그리고 사고조사조차 정치문제로 변질하여 조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등에 대한 정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3. 중대사고 예방에 대한 제언

앞으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사항에 대한 조언을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안전에 투자해야 한다는 근로자 의견에 대해 사업주가 안전은 쓸데없이 돈만 들어가는 일이라며, “앞으로 안전에 대한 의견을 내는 사람은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한 번만 이야기하더라도 회사 근로자들은 안전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된다. 안전에 있어서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 정부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여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 재해를 일으키는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에서의 안전은 사업주의 안전 마인드가 큰 영향을 미치고, 국가의 안전은 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관련 장관의 안전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 대통령은 원전산업 업체 간담회에서 “지금 원전 업계는 전시다. 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라고 했다. 원전산업의 발전을 강조하면서 나온 순간의 실수라고 판단되지만,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안전을 경시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내면, 안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공무원들은 ‘관료주의 사고방식을 가진 구시대의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중요사항을 건의하기가 어렵다. 국가의 안전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책임자에 대한 안전교육 대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안전 조직이 필요하다. 안전 학자인 하인리히는 안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며, 이러한 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유가족의 슬픈 소식만 들려올 뿐 책임지는 조직과 사람은 전혀 없다. 지금까지 한국의 안전 관련 조직은 권한만 있지 책임을 지고 운영할 줄 모른다는 것이 밝혀진 것 같다. 정부가 이러한 안전 관련 조직을 운영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는 없다. 정부 고위직의 책임보다 경찰과 소방 조직의 하위 공무원의 잘못만 지적하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조직은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이지 안전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다. 경찰공무원은 공무원 시험을 보고 채용되어 안전

관리, 인간공학, 대규모 군중들 속에서 나타나는 이상심리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다. 경찰조직과 구청 등 지자체 조직에 안전 전문가가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 조직에 안전전문가가 활동할 수 없는 시스템에서는 한국에서 중대 사고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셋째, 변화관리는 안전관리의 핵심이다. 코로나로 3년 동안 야외활동에 위축된 젊은 시민들이 코로나에 대한 완화 조치로 흥미로운 축제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에 대응하는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사업장에서는 신규설비 도입과 공정의 변화가 있으면, 이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변화관리는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안전 관련 조직에는 외부 환경 변화 시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시스템이 없다. 변화관리의 중요성을 아는 공무원이 얼마나 될까? 이 태원 참사와 같은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어떤 변화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 연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 금리 변화가 안전 투자에 미치는 영향, 원전의 계속 운전과 사용 후 핵연료의 건식저장이 시민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 조사와 연구를 하고 이러한 정보 결과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넷째, 이태원 참사와 같은 중대 재해의 조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중대사고 조사의 목적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사고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어 다시는 유사재해 또는 동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사고에 대한 책임은 조사 후에 책임소재가 밝혀지면 적절하게 처리하면 된다.

사고의 조사를 경찰조직과 검찰조직에서 한다고 한다. 사고의 원인이 경찰조직의 대응 미흡이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경찰조직이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는 조사와 보고서를 낼 수 있을까? 그런 보고서를 제출하면 경찰청장이 가만히 있을까? 경찰과 검찰의 조사는 그 결과를 아무도 믿지 못하는 조사가 될 것이 명확하다. 누군가를 처벌하고자 하는 사고조사에는 어쩔 수 없이 사고 은폐가 발생하고, 사고가 은폐되면 주요 원인을 찾을 수 없어 결국에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하게 되는 구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태원 참사는 국회의 국정조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안전전문가가 이태원 참사를 독립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사고의 직접 원인과 배후 원인을 찾아내어 미래에는 중대 사고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책임자

의 처벌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고조사 다음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행정부서와 경찰부서의 수장들은 사고가 수습되었기에 도의적으로 사의를 표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고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4. 맺는 글

이태원 참사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159명이라는 사망자가 발생한 엄청난 사고이다. 그러나 3달이 훨씬 지난 현시점에 책임지는 조직과 사람이 없다. 그리고 책임자의 처벌을 위한 경찰과 검찰 조사만 이루어질 뿐 사고의 원인을 찾는 안전전문가의 조사는 없다. 현재 상황이 안전전문가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인다. 앞으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중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조사가 필요하며, 사고조사를 바탕으로 안전전문가가 포함되는 정부 조직의 구성, 그리고 변화관리와 같은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이태원 참사에서 발생한 159명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고 올바르게 추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대 사고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 문화를 만들고 정착시켜야

한다. 우리는 말로는 안전을 강조하면서 실상은 경제적인 효율을 중요시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율성과 안전 중에서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을 선택하는 문화와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여야 한다. **인본세상**